

I. 원전

1. 영혼론에 관해 탐구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는 한편 선대들이 주장한 영혼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담긴 내용에서 좋은 점들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영혼론을 탐구하는데 따른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03b20-24

2. 우선 우리는 본성적으로(kata: fuvsin) 영혼에 가장 잘 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혼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두 가지 즉 운동(kinhvsi")과 감각(aijsqavnesqai)이다. 우리가 선대들로부터 영혼에 관해서 물려받은 것은 대체로 이 두 가지이다. 403b24-28

3. 어떤 이들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운동자, to: kinou'n)으로서 가장 낮고 일차적인 자격을 가진 것은 영혼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코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이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03b28-31

4.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이 일종의 불 또는 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무한한 수의 형상들(schmavta) 즉 원자들이 있으며, 구형으로 된 것들은 불(火)과 영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것들은 문 틈새로 비치는 햇살을 타고 떠다니는 작은 알갱이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모든 종류의 종자(種子)들을 그는 전체 자연의 구성요소(stoicei'a)라고 부른다. 레우키포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구형의 원자들은 어느 곳이나 침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곧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생명체(zwvh)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자라고 보았다. 들숨(ajnapnei'n, 호흡)은 생명체의 주요한 특징이다. 몸체를 에워싼 것이 몸체를 압박해서 안에 있는 원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생명체가 운동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원자들은 결코 멈추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쉬므로써 다른 원자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안에 남아있는 원자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들이 압박에 저항하고 주변을 응축함으로써 안에 남아있는 원자들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원자들이 이런 규제를 가하고 있는 한에서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403b31-404a16

5.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도 확실히 이와 같다. 이 학파에 속하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공기중의 원자들이 영혼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 원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고요한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404a16-20

6. 영혼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운동은 영혼에 가장 적합한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 결과 모든 것들은 영혼에 의존해서 움직이고, 영혼만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코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04a20-25

7. 아낙사고라스도 이와 같은 방식을 말한다. 그는 지성이 운동자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영혼도 운동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데모크리토스와 똑같지는 않다.

404a25-27

8. 데모크리토스는 지성과 영혼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드러난 현상이 곧 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우리는 호메로스의 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헥토르에 대해 ‘다른 정신’(ajllofronevwn)¹⁾으로 누워있다고 표현한다. 그는 참된 진리에 주목하는 능력으로서 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영혼과 지성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404a27-31

9. 이와 관련해서 아낙사고라스가 하는 말은 더 불분명하다. 그는 종종 옳음이나 좋음의 원인이 곧 지성이며 그것이 영혼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생명체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고등동물이건 하위동물이건 관계없이 모든 생명체 안에 영혼이 들어 있다라고도 말한다.

404b1-5

10.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서 지성이 모든 생명체에 똑같은 것으로 있다고 보지 않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지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

404b5-6

11. 따라서 운동의 관점에서 생명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우월한 의미에서 운동하는 힘이라고 간주하였다.

404b7-8

II. 주요 개념

초기 자연철학자들을 비롯한 선대들은 영혼이 가진 주요 두 특징으로서 ‘운동’과 ‘감각’을 꼽았다. 운동의 관점에서 스스로 운동하는 것(=운동자)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영혼은 ‘운동’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구형의 원자이다. ‘참인 존재’는 감각할 수 있는 물체이상일 수 없다. 즉 감각에 드러나는 현상이 참인 존재들이다.

피타고라스학파들 중 일부는 데모크리토스와 같이 알갱이가 영혼이고, 또 일부는 그 알갱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영혼이라고 하였다.

아낙사고라스는 지성은 도덕적 원리이기도 하고 또 지성과 영혼이 같다고 하였다. 그에게 지성과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자이다.

III. 세부 논의

1.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영혼론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선대들의 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전통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자는 것이 그 이유인데, 선대들이 제시한 영혼론에서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권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영혼론은 B권에서부터 다루지만, 그에 앞서 선대 철학자들의 영혼론을 두루 섭렵한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이론의 출발점과 논변과정을 추적해 나간다.

우선 선대들이 영혼에 본성적으로 속한다고 본 것, 즉 영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특징에서 탐구를 시작하자고 말한다. 누가 보아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영혼이 가진 본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구별해 주는 특징으로서 이것이 탐구의 출발점이다.

생명체가 가진 명백한 특징을 선대들은 ‘운동’과 ‘감각’으로 보았다.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

1) 프로네시스(frovnesi")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둔, 의도 또는 숙고(熟考) 등을 나타낸다. 정신은 영혼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다른-정신은 곧 다른-영혼이므로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갔음을 가리킨다. 즉 죽음을 나타낸다.

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운동’이 중요한 특징이고 또 감각하거나 지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각’도 중요한 특징으로 삼았다. 선대들을 포함한 당대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의 원리를 규명할 수 있으면 영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혼은 운동의 원인(원리) 또는 감각의 원인(원리)이라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3. 초기 자연철학자들은 주로 운동에 주목하여 영혼의 원인을 탐구한다.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존재라면, 생명체의 영혼은 반드시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며 또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보았다.

4. 여기서는 초기 자연철학자 중 한 사람인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을 소개한다. 그는 영혼이 가장 잘 움직이는 존재로 보고, 영혼은 일종의 불 또는 열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뿐이라고 하였고, 제일원리는 나눌 수 없는 것 즉 원자인데 수적으로 무한하다. 이 원자들은 본질은 동일하지만 모양(형상), 크기 및 위치(배열)에 따라 구별된다. 원자는 운동할 수 있고 결코 멈추는 일이 없으며 만물들은 이 원자들의 운동과 결합에서 생겨났다. 이 원자들은 문틈새로 비취는 햇살에 떠다니는 알갱이처럼 움직인다. 원자들의 모양은 세모, 네모 등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움직이기에 가장 원활하고 적합한 모양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구형으로 된 원자가 영혼이라고 보았다.

생명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호흡을 중요시 했고, 호흡의 운동에 의해서 생명이 존속한다고 보았다. 우리의 감각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 데모크리토스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생명체가 죽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운동해야 한다. 즉 끊임없이 호흡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이런 생각은 생명체의 한 현상에 대한 묘사로서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체의 원인으로서 호흡은 생명체가 살아가게 하는 운동이다. 즉 호흡이라는 운동을 할 때 원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일부 원자들을 잃게 된다. 그런데 생명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생명체 안에 있는 구형의 원자들을 튕겨나가지 않게 보존하면서 새로운 원자들을 들여보낸다. 구형의 이 원자들이 곧 영혼 자체가 된다.

5. 피타고라스학파들의 이론이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데모크리토스와 비슷한 생각인데, 공기중의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눌 수 없는 것들로서 수에서 무한하다. 이것이 영혼이다. 또 다른 피타고라스 학파는 저 알갱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영혼이라고 주장하였다.

6. 지금 다루는 선대들의 공통점은 영혼을 운동의 관점에서 보고,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이들의 생각이다.

7.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운동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순수한 지성은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운동자이다. 그에게 영혼은 지성과 같다.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선대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8. 데모크리토스에게 지성과 영혼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에게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 실제세계에 존재한다. 영혼 안에는 감각능력 이외에 다른 어떤 지적 파악능력은 없다. 감각에 주어지는 것들은 ‘현상’으로서 이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앎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는 <감각에 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곧 <참인 것>이다. 따라서 지성은 지

적 대상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며 감각능력 이상일 수 없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오로지 감각할 수 있는 것 뿐이다.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는 감각할 수 없지만 ‘참 존재’로서 ‘원자’와 ‘공간’(빈곳)으로 놓았다. 이 두 가지가 그에게는 참된 실체가 되겠다. 따라서 감각에 드러난 현상이 참이라고 할 때, 감각을 기준으로 한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로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저 두 실체인 원자와 공간은 감각에 지각되는 대상은 아니다.

호메로스가 인용한 용어 ‘다른-지성’에서 지성은 영혼이자 한 인간의 전부이다. 즉 ‘다른-영혼’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헥토르가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로서 싸우다가 패배한 상태에 놓였다면, 그는 정복을 당한 자로서 ‘다른-정신’으로 즉 ‘다른-사람’이 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지성’은 별도의 인식 능력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9. 아낙사고라스의 입장은 더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가 지성을 옳고 그림의 원인으로 놓기도 하고 지성과 영혼이 동일하다고 놓기도 하는 데 있다.

10.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성과 영혼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그는 옳은 행위가 지성에서 파생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성은 심사숙고를 함으로써 주어진 일을 완수한다. 더구나 영혼을 가진 모든 동물이 심사숙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심사숙고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영혼은 분명 지성과는 다르다.

11. 운동의 관점은 운동자 특히 자발성을 가진 운동자의 관점이다.

선대들의 이론II

-엠페도클레스, 플라톤, 스스로 움직이는 수로서의 영혼-
A권 2장 404b8-30

I. 원전

1. 대상을 파악하고 감각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성요소의 원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물론 어떤 이는 원리가 여럿이고 어떤 이는 원리가 하나라고 말한다.
404b8-11

2. 예를 들어, 엠페도클레스는 영혼이 온갖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들이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대지를 아는 것은 신성한 대지를²⁾ 통해서고, 물을 아는 것을 물을 통해서, 파괴하는 특징을 가진 불을 아는 것은 불을 통해서이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쓰디쓴 미움을³⁾ 통해서 미움을 알게 된다.”
404b11-15

3. 이와 마찬가지로, <<티마이오스>>편에서 플라톤은 영혼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유사한 것을 통해서 유사한 것(to; o{moion)이 알려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상들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404b16-18

4. 플라톤은 <<철학에 관해서>>라는 강의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다. 즉 생명체(to; zw/on') 자체는 일자(一者), 근원적인(provto")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로 구성되어 있다.

2) 신성한(di'o") 가이아(대지)에는 여전히 신화적인 흔적이 남아 있다.

3) 지독한, 쓰디쓴(lugrov")의 표현은 엠페도클레스가 운문체로 쓴데 따른다.

다른 대상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404b18-21

5. 또한 달리 말하자면, 지성은 일자이고, 인식은 이자(二者)이다(왜냐하면 일자에서 일자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견은 평면수(平面數)이고 감각지각은 입체수(立體數)이다.⁴⁾ 플라톤에 따르면 수는 종(種)적 형상(타; ei[dh])이자 존재하는 대상들의 원리이다. 그리고 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은 지성에 의해서 알려지고, 어떤 것은 인식에 의해서, 어떤 것은 의견에 의해서, 어떤 것은 감각지각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수가 존재하는 대상들의 종적 형상이다.

404b21-27

6. 그런데 영혼은 운동과 앎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수(ajriqmo;n kinou'nq j eJautovn)라고 주장하면서 영혼은 이런 두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404b27-30

II. sensus

영혼은 운동과 앎의 원리이다. 대상세계의 원리와 영혼의 원리가 유사하다. 철학자들에 따라 원리의 개수가 다르다.

엠페도클레스의 원리의 수는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수화풍(地水火風)과 애오(愛惡)이다. 플라톤도 역시 영혼의 원리와 대상세계의 원리를 유사한 것으로 놓았다. 영혼의 원리는 일자, 길이, 너비, 깊이로 되어있고 이것은 대상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약간 바뀌어서 말하면 일자성, 이자성(二者性), 평면수의 성질, 입체수의 성질이 영혼과 대상세계에서는 유비적인 관계로 성립한다. 지성, 지식, 의견, 감각지각의 구성원리도 역시 대상세계의 인식에 그대로 상응한다. 따라서 원리는 수로서, 이 수는 종적인 형상이다.

III. disputatio (아래 번호는 위 원전앞에 붙인 번호)

1. 이 논의에 앞서서 운동의 관점에서 영혼을 보았고,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곧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므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텍스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앎’ 또는 ‘감각’하는 것으로서 영혼을 검토한다. 대상세계를 감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반드시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원리’이다. 그런데 원리가 몇 개이어야 하는지 그 개수에 대해서는 철학자들마다 다르다.

2. 엠페도클레스와 플라톤은 영혼과 대상세계의 관계에서 ‘유사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물론 원리의 개수나 영혼의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의 유사성을 인식자가 포함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안다’는 인식상태를 얻는다. 인식대상의 어떤 것이 여하간 인식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대상세계가 가진 본성이 인식자 안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들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에 의해서 알려진다>고 보았다. 존재양식으로 보면, 그것이 지성의 대상이든, 지각의 대상이든 또는 상상의 대상이든 실제로 대상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상의 구성원리를 아는 것이 곧 대상을 아는 것이다. 대상의 구성원리는 영혼의 구성원리와 같다. 따라서 영혼은 대상이 무엇이든 알 수 있는데, 영혼이 곧 대상을 구성하는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3.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35A 이하)에서 따온 내용이다. 원리로서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즉 제1원리로서 동일성과 이질성이 그것들이다. 이 중 동일성은 비-물질적인 대

4) 가로와 세로가 결합해서 너비가 되고, 깊이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함께 결합하여 고체성을 갖는다.

상들처럼 단순하면서 불변하는 성질이다. 변화하고 나누어지는 성질은 물질적인 대상들이 가진 특징으로서 이질성이라고 부른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두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대상을 안다는 것, 특히 ‘같다’ 또는 ‘다르다’는 특성을 알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영혼이 ‘동일성’의 원리를 분유하거나 ‘이질성’의 원리를 분유하기 때문이다. 대상들을 유나 종으로 묶는 경우 그런 대상들에서 ‘동일성’의 원리가 구체화해서 드러나고, 속성이나 차이점들에 주목하는 경우 ‘이질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영혼이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4. <<철학에 관해서>>에서 플라톤은 지성(nous)으로 파악하는 대상들은 질료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대상들이다. 이 대상들이 지식의 원인이고 감각할 수 있는 대상들의 원인이다. 그는 대상들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감각지각의 대상, 수학적 대상 및 보편적 대상으로 나누었다. 세 번째 보편적 대상이 다른 두 대상의 원인이다.

플라톤에게 보편적 대상은 곧 수(추상수가 아닌)의 성질을 갖고 있다. 존재하는 대상의 원인으로서는 보편은 곧 ‘수적’인 특징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는 것들의 구성원리는 ‘종’이며 ‘종적인 수’이다. 수는 단일성(unity, 일자성)과 이원성(duality)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일자성 하나만으로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으므로 ‘일자성’에 속한 다른 성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원성’이다.

5. 플라톤에게 대상의 존재를 질료와 관련해서 등급을 구분하면, 감각할 수 있는 대상, 수학적 대상 그리고 보편적 이데아로 나뉜다. 수학적 대상과 보편대상의 차이점은 수적인 특징을 가지느냐에 달려있고, 보편적 대상은 수적으로 다른 대상들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즉 ‘종적 형상’으로서 이데아는 하나뿐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이데아는 수적인 특징들의 원인이다. 즉 우리가 대상세계의 감각가능한 대상에서 구별하는 길이, 너비 및 폭과 같은 수적인 특징은 바로 이 보편적인 이데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는 길이의 이데아는 근원적 ‘이원성’이다. 왜냐하면 길이는 단위에서 단위로, 점에서 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비의 이데아는 근원적 ‘삼원성’(Trinity, 三元性)으로 삼각형은 평면도형의 근원이다. 깊이의 이데아는 길이와 너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근원적 ‘사원성’(四元性)이다. 이 입체도형은 네 각을 포함하는 피라미드이다.

영혼도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원인으로서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수이다 즉 일자성과 이원성으로서 수로 구성되어 있다.

6. 영혼은 수 즉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세 번째 구절을 인용하는 부분이다. 대상들의 종적 형상과 원리는 수이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성원리도 수이므로 영혼들도 대상들의 존재방식과 같다. 즉 영혼은 지성, 인식, 의견 및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성은 일자의 이데아와 연결되고, 인식은 이원성과 연관된다. 이원성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어짐, 즉 전체에서 결론으로 이어짐이다. 의견은 근원적 삼원성으로서 전체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원성에 덧붙여 결론과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삼원성이다. 감각은 근원성 사원성에서 유래한다.

IV. 요약

영혼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하는 관점에서 탐구한다. 감각하는 기능,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식을 얻는다. 또는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인식활동에 대한 선대의 이론에서 특히 플라톤이

제시된 영혼과 대상세계의 유사성을 이 구절에서 다루었다. 결국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옴으로써, 대상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수'라고 놓는데, 이 수는 추상적인 수가 아니라 보편적 대상인 이데아와 같이 '종적 형상'이다. 이러한 원리로서 수가 곧 영혼과 대상과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스스로 움직임'이 영혼의 한 특징이고, 또 '수'는 영혼이 인식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수'이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동물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대상과 영혼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고 그런 점에서 영혼이 가진 원리가 대상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여할 때, 즉 그 원리들을 '분유'할 때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플라톤의 논의는 우선 구성요소의 유사성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대상에 관여함, 즉 대상세계의 원리들(일자성, 이원성 등)을 '분유'하는 활동에 의해서 인식이 성립한다.

선대의 이론 3

영혼과 구성요소(원소)

<404b30-405b30>

I. 원전

1. 제1원리는 무엇이며, 제1원리는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가장 큰 의견 차이는 원리가 물질(*sw'ma*)로 되어있다고 보는 이들과 물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이들 사이에서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원리가 두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원리의 개수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이들은 원리가 하나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여럿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원리들에 따라 영혼을 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본성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제1원리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놓았기 때문이다.

404b30-405a5

2. 그리하여 어떤 이는 영혼이 불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불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미세하며 물질의 성질이 가장 적다는 사실에 있다. 게다가 일차적인 의미에서 불은 스스로 움직이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 데모크리토스는 두 가지 문제 즉 영혼의 얇과 영혼의 운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상가들보다 비교적 잘 정리된 내용을 내놓았다. 그는 영혼이 지성(누스)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일차적이고 나눌 수 없는 물질에 연관되어 있고, 영혼은 크기의 미세함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둥근 모양은 가장 가볍고 움직임이 가장 좋은 모양이며, 따라서 불(火)과 누스는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졌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405a5-13

3.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낙사고라스는 영혼과 누스는 다르다고 보면서도 그럼에도 그는 같은 본질을 위해서 두 용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는 누스만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단순하고(*aJplov*) 혼합된 것이 아니며(*ajmimh'*) 순수한(*kaqarovn*) 특

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누스가 세상에서 매우 탁월한 원리로 놓고 있다. 그는 사실 누스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삶과 운동의 원리라고 보았다. 405a13-19

4. 자석(磁石)은 철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다고 탈레스가 주장했다는 말이 사실일 경우, 이런 전승 자료에 따르면 그도 역시 영혼은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보았음이 분명하다. 405a19-21

5. 디오게네스는 일단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미세하며 그 모든 것들의 원리라고 말하면서, 공기는 영혼이 인식하고 운동하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일차적인 원리이므로 공기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기는 가장 미세한 특징을 가졌으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405a21-25

6.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영혼은 제일원리인데, 모든 것들은 발산증기(發散蒸氣, ajnaqumivasi)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증기는 물질성을 가장 적게 가진 실체로서 언제나 움직인다. 그리고 어떤 것이건 움직이는 대상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진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405a25-29

7. 알크마이온도 영혼은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영혼도 불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혼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성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비롯한 천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연속해서(sunecw")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였다. 405a29-405b1

8. 히포와 같이 다소 거친 표현을 구사하는 일단의 사람들은 영혼이 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든 것들은 습기를 지녔기 때문에 영혼이 물이라고 확신한 것 같다. 이들은 영혼이 혈액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견해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일차적인 원리로서 영혼은 혈액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405b1-5

9. 크리티아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영혼이 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에서 핵심은 감각이 영혼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러는데 있다. 영혼이 지닌 감각능력은 혈액이 가진 본성에 기인한다. 405b5-8

10. 흙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흙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흙이 모든 요소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흙이 모든 요소들과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예외이다. 405b8-10

11. 이와 같은 견해들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세 기준 즉 운동, 감각 그리고 비물질성을 기준으로 영혼을 정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혼을 인식능력으로 정의할 때 영혼은 요소이거나 또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단 하나만 제외하고) 영혼과 요소들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그들은 어떤 것이건 그것과 유사한 것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혼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영혼이 모든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요소만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불이나 물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혼도 역시 여럿이라고 보았다. 405b11-19

12. 그러나 아낙사고라스만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며, 누스는 감각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과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누스가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지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가 한 말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 405b19-23

13. 대답하는 특징을 가진 것을 제일원리로 보는 사람들도 영혼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답하는 것들 중에서(열기 또는 냉기 등) 하나를 택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 영혼도 그러한 대답자들 중 하나로 놓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름을 따라 영혼을 생각한다. 영혼이 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생명(zh'n)이 열기(qermovn)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열기에서 이름을 따서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혼이 냉기(yucrovn)와 같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날숨과 들숨(katavyuxi")에 따라 영혼(yuvch)로 부르게 되었다.

영혼에 관한 이런 견해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으로서 각자의 견해에 따른 근거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405b23-30

II. 주요개념

제일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일원리는 몇 개인가? 이 두 물음에 대해 사람들 마다 견해가 다르다. 원리가 무엇이나에 따라 영혼을 보는 견해도 달라진다. 원리가 물질성(sw'ma)을 가진 원리와 그렇지 않은 원리 그리고 물질성과 비물질성 양쪽 요소를 모두 가졌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따라서 영혼에 관한 탐구는 운동성, 인식능력 및 물질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III. 세부논의

1. 영혼에 관한 선대의 이론들이 다양한데 그 이유는 궁극의 원리 즉 제일원리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원리의 구성요소가 물질성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 결국 영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게다가 이 두 요소를 결합하는 입장도 있다. 물질성을 가진 원리는 예컨대 불이나 물 또는 공기가 있고 물질성이 없는 것은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나 이데아가 있다. 플라톤주의자들과 같이 두 요소가 함께 있다고 보았다.

원리의 개수에 관해서는 하나 또는 여럿이 있다고 보는 입장들이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즉 원리로서 영혼은 공기라고 보았고, 어떤 이는 불이라고 보았다. 반면 엠피도클레스에게 원리의 개수는 넷이므로 영혼 역시 네 요소로 구성된다. 플라톤의 경우는 물질성이 아닌 것이 원리가 되겠다. 여하튼 이들은 모두 영혼이 운동의 주요 원천으로 놓았다.

2. 물질성을 가진 원리의 예로서 불(데모크리토스), 공기(디오게네스), 물(히포) 등이 있는데 흙은 제외된다. 그 이유는 흙이 한층 더 근본적인 지위에 있어서 다른 물질성을 가진 요소가 동등한 반열에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운동과 얽힌 원리로서 영혼이 가진 특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데모크리토스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영혼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정리된 설명을 내 놓았다. 가장 가볍고 가장 미세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불'이다. 그러므로 데모크리토스가 보기에 영혼은 불이 아닐 수 없었다. 천지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들은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원자의 모양 중에서 영혼은 구형(球形)으로 된 원자에 해당된다. 구형은 운동성에서 가장 탁월하다. 따라서 제일원리로서는 인식능력을 가졌고, 구형이라는 점에서 운동성을 지닌 불은 데모크리토스에서 영혼이 되겠다.

3. 아낙사고라스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영혼과 누스를 보기는 하지만, 때로는 영혼과 누스가 다르다고 보았다. 데모크리토스는 누스가 물질성을 가진 것으로 본 반면에 아

아낙사고라스는 누스가 ‘단순·비혼합·순수’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다. 본질과 구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단순성, 다른 요소와 혼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혼합,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개입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순수성을 지닌 것이 아낙사고라스의 누스이다. 그럼에도 그는 운동과 앎의 원리는 동일한 원리에 속한다고 보았다.

4. 탈레스는 천지만물의 원리(아르케)를 탐구하는 작업에서, 생명을 가진 것들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생명체의 모든 원리나 그 출발점이 되는 것들은 축축한 습기를 지녔다는 경험적 관찰에 주목한다. 그래서 제일원리들은 습기를 지닌 것이므로 그런 것에 해당되는 으뜸은 물이다. 그런데 그는 영혼이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은 운동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보아서 자석이 철을 움직이게 함으로 특별한 힘을 가진 돌이 영혼이라고 보았다. 아낙사고라스에 주목하여 정리한 내용은 불은 앎(감각)의 원리이라는 점이고, 탈레스에서 영혼을 특정한 돌에 주목한 것은 운동의 원리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6.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일원리를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공기와 물이 결합한 증기라고 하였다. 일종의 둘 이상의 특징을 지닌 혼합물이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일정한 특성의 물질이 아니다.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진 것들에 있어서는 그 중간이 있게 마련인데, 이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하겠다. 두 극단이 혼합되어 있다면, 그러한 혼합의 중간에 해당되는 원리도 역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잘 맞는 것은 물이나 공기의 혼합물인 증기이고, 이것이 운동과 앎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되겠다.

7. 알크마이온은 운동의 관점에 주목한다. 영혼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런 점은 천체와 닮았다. 천체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당시에 당연히 받아들인 전제이고 천체는 불멸하는 존재였다. 천체의 영속하는 움직임이 불멸의 원인이다. 천체와 유사한 영혼은 알크마이온이 보기에 불멸성을 지녔다.

11.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면, 단일한 특징을 가진 것을 원리로 보거나 상반된 특징을 가진 것들을 원리로 보기도 하였다. 영혼의 운동성과 인식가능성에 덧붙여 추가된 기준은 물질성 여부였다. 가장 미세한 것, 가장 가벼운 것이 물질성에 가장 멀리 있다고 보았다. 물질성이 가장 적은 것이 원리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리’가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요소의 미세함에 주목하는 이들의 일반적 주장이다.

요소 즉 제일원리가 하나이면, 그에 따라 영혼도 하나가 되겠고, 제일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럿이면 영혼 역시 여러 가지가 되겠다.

12. 아낙사고라스에 가진 당시의 별난 관점으로서 누스의 순수함 즉 다른 어떤 것들과도 공통된 특징이 없다고 보았다. 누스가 어떤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누스는 비수용성(ajpaqh')을 가졌다는 점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다.

13. 원리들 중에서 불과 물처럼 상반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반된 것들을 결합한, 또는 종합한 것을 원리로 내세운다. 엠페도클레스는 열기와 냉기, 건조와 습기가 요소이고 이런 것들이 영혼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물론 한 요소만 있으면 영혼도 하나의 요소로 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요소가 가진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름을 빌어 영혼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열기나 냉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열기나 냉기와 연관된 명칭을 가지고 영혼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영혼은 열기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zaei'n 또는 zouei'n(살아가다)에서 유래한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이 어휘는 또 zeei'n(끓다)에서 유래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이 냉기라고 주장했는데, 냉기는 psychron(yucrovn)으로서 이

용어는 냉기를 뜻하다. 사실 냉기는 생명체들이 호흡을 할 때 바깥의 찬 공기를 들며 마심으로써 살아간다는 경험에서 이런 용어(냉기, psychron)를 써서 영혼(psychè)이라고 했다.

IV. 요약

영혼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제일원리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제일원리에 따라 영혼의 본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제일원리의 개수에 따라서도 영혼의 구성도 달라진다. 그런데 제일원리는 물질성여부에 따라 크게 의견차이가 있는데, 불이나 물 등이 물질성을 가지기는 했지만, 영혼의 운동성과 인식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물질성’을 가진 것이 제일원리의 자격조건이다. 가장 적은 물질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물질을 가진 원리이다. 반면 물질이 아닌 것들 예컨대 ‘수’와 같은 것은 그와 상반된 원리들인데 여기서 언급이 없다. 당시의 여러 논객들이 등장해서 제일원리를 내세우고 그에 따라 영혼의 본질을 설명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정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한다. 여하튼 ‘운동성·인식가능성’에 따른 영혼의 탐구인데, 새롭게 등장한 기준은 ‘물질성’여부였다. 전반적으로 선대의 여러 이론들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후에 물질성 여부에 따른 원인설명의 한 징표를 볼 수 있겠다.

선대들의 이론 4

신체를 움직이는 영혼; 데모크리토스와 플라톤

A3 406b15-407a2

I. 원전

1.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스스로 움직이듯이, 영혼이 거주하는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한다. 데모크리토스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그는 희극시인 필리포스와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필리포스는 다이달로스가 목제(木製) 여신상 아프로디테에게 수은을 주입하여 그 여신상이 움직이게 했다고 말한다. 데모크리토스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나눌 수 없는 구형(球形)의 원자가 운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 구형의 본성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이 구형이 신체 전체를 끌어당겨서 움직이게 한다. 406b15-22

2.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을 것은 ‘영혼이 어떻게 정지(hjrevmhsi)의 원인인가’하는 점이다. 운동의 원인이라는 전체로부터, 어떻게 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406b22-24

3. 일반적으로 말하면 영혼은 이런 방식으로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결정에 따른 선택(proairevsi)과 사고(nohvsi)를 통해서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다. 406b24-25

4.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티마이오스는 영혼이 어떻게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지에 관해 자연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영혼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영혼이 신체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406b26-28

5. ‘영혼은 여러 요소들로 결합되어 있고, 조화로운 수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서, 그 결과 영혼은 타고난 조화로우미의 감각을 지녔고, (우주) 전체는 본래 잘 조율된 운동을 갖추었다. 406b28-31

6. 신은 직선을 구부려 원을 만들고, 하나의 원을 공통된 두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원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두 원 중에서 하나의 원을 다시 일곱 개의 원으로 세분하는데, 이것은 천체의 운행이 마치 세계-영혼에 의해 일어나는 운동과 같다.’ 406b31-407a2

II. 핵심용어(sensus)

운동이 영혼에 본질적 요소라는 점은 선대들의 입장이다. 영혼은 스스로 움직인다. 즉 자기 자신(스스로)을 움직이게 한다. 이처럼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듯이 영혼은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주장은 데모크리토스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도 같은 입장이다. 운동의 원인은 정지의 원인이기도 하다. 데모크리토스에서는 영혼이 ‘정지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자발성’을 확보할 수 없음이 비판을 받는다.

데모크리토스는 수은이 목재 여신상 아프로디테를 움직이게 하듯이,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설명한다. 플라톤에서도 이와 같은 비유로서 세계-영혼이 천체를 움직이듯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III. 세부 논의(disputatio)

1. ‘운동이 영혼의 본질적인 특징’에 반박하면서 몇몇 철학자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그 주장에 반론을 편다. 우선 데모크리토스의 의견을 반박하고, 이어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한 인물을 들어 반박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407b25-30).

이 이론은 앞서 언급한 있는 주장 즉 <영혼은 스스로 움직임, 이 움직임이 신체를 움직이게 함>에 대한 여섯 가지 논박 중 네 번째로 언급한 바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희극시인 필리포스의 일화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필리포스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다이달로스가 나무로 여신상 아프로디테를 만들고 그 안에 수은을 넣어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데모크리토스가 영혼에 대해서 말한 것과 아주 비슷하다. 데모크리토스에서 영혼은 나눌 수 없는 구형으로 되어 있고, 이 구형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 끊임없는 움직임을 신체 전체를 당겨서(응축해서) 움직이게 만든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체에서 <영혼이 운동의 원인이자 정지의 원인>임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데모크리토스에서 영혼은 운동의 원인이지만 정지(停止)의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형의 원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한다면 결코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수은에 의해서 아프로디테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혼에 의해서 움직임은 자발적이다. 영혼에 의한 움직임을 지성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데모크리토스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플라톤이 영혼에 관해 말한 내용은 데모크리토스의 이론과 아주 비슷하다.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데 영혼은 신체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주장은 플라톤의 생각을 대변하는 티마이오

스의 주장과 비슷하다.

5. 플라톤의 주장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인다. 우선 1)영혼을 구성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2) 영혼의 본질에서 어떻게 운동이 나오는가?

1) <<티마이오스>>(35A 이하)에서 세계의 영혼은 하위 영혼들이 모방하는 대상이다. 세계영혼의 본질은 곧 하위에 속하는 온갖 영혼들이 지닌 본질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바(404b16-27)와 같이 모든 만물들의 본질은 ‘수’이다. 형상적 요소는 ‘하나’이고 질료적 요소는 ‘둘’이다. 모든 수는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홀수는 ‘1’이라는 나눌 수 없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일성과 유한성이 부여되고, 짝수는 차이성과 무한성이 부여된다.

<<자연학>> III 4, 203a10-15에서 이런 이론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홀수 + 일 = 제곱수>가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첫 번째 홀수(3)와 단일성으로서 ‘일’을 더하면 제곱수가 된다. 즉

$$3 + 1 = 4 \text{ (2의 제곱)}$$

$$5 + 4 = 9 \text{ (3의 제곱)}$$

$$7 + 9 = 16 \text{ (4의 제곱)}$$

$$9 + 16 = 25 \text{ (5의 제곱) 등}$$

그런데 첫 번째 짝수(2)와 단일성을 나타내는 ‘일’을 합하면 그렇지 않다. 즉

$$2 + 1 = 3 \text{ (3각수)}$$

$$4 + 3 = 7 \text{ (7각수)}$$

$$6 + 7 = 13$$

$$8 + 13 = 21 \text{ 등}$$

이 두 경우에서 보듯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요소로서 홀수가 결합함으로써 제곱수라는 일정한 형태의 수가 나온다. 즉 동일성을 볼 수 있고 한정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첫 번째 요소로서 짝수와 결합함에 따라 차이성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무한성이 보인다. 플라톤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이 홀수와 짝수에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다.

플라톤에서 영혼은 불변적 실체와 가변적 실체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혼은 곧 동일성과 차이성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짝수와 홀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혼도 동일성과 차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짝과 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간단계(도정)에 있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플라톤에게 영혼은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율이 있고 또 무한수도 있다. 이런 비율들 중에서 조화를 이루는 수의 관계가 있다. 그런 수들의 원리를 조화의 원리라고 하겠다.

플라톤의 견해에서 “영혼은 조화로운 수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서”에서 조화로운 수는 조화의 비에 따라 서로 연관된 수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영혼의 수가 1, 2, 3, 4, 8, 9 및 27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수들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비율이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조화로운 수로서 영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타고난 영혼의 특징에 있다. 영혼은 본래 타고나기를 조화를 즐겨워하고 부조화를 싫어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색깔이나 소리나 또는 맛이나 온갖 감각에서 부조화를 싫어하는 탓에 조화는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영혼은 타고난 조화의 감각” 즉 영혼은 “조화를 아는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판단에 따르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주의자들이 아름다운 화성은 천체의 운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천체의 운동은 세계-영혼에 의해서 움직인다. 영혼은 세계-영혼을 따르며, 영혼은 수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주 “전체는 본래 잘 조율된 운동”이다.

6. “신은 직선을 구부려 원을 만들고, ...” 여기서는 세계-영혼이 천체운동의 원인임을 설명한다. 모든 수에서 자연적 순서는 직선이다. 자연수의 순서는 1(단일성)에 1을 추가하여 이어지는 순서로서 등차가 1인 수열이다. 1, 1+1, 1+1+1, ...이다.

자연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열을 만들듯이, 신도 수를 가지고 다양한 만물을 만들 수 있다. 신은 영혼도 수로서 만들었다. 즉 첫 번째 짝수인 2와 첫 번째 홀수인 3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열을 만들 수 있다.

직선으로 나열된 수, 자연수를 두 종류의 수열로 나눈다. 하나는 공통비가 2이고, 또 하나는 공통비가 3이다. 2배수비는 3:2와 4:3으로 나뉘고, 3배수비는 2:1과 3:2로 나뉜다. 그리하여 기하학적인 수열이 되어 공통비 2는 1, 2, 4이 8에 이르고, 공통비 3은 1에서 3, 9를 거쳐 27에 이른다. 이 두 방향은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하나의 점(1)에서 만난다.

2배수비에서 1+2는 3배수의 3이 되고, 3배수비에서 1+3은 2배수비의 4가 된다. 이 순서로 두 선을 교차해서 그으면 X 모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같은 수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4에서 시작하여 8에 이르고, 3에서 27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두 수열은 같은 유형의 수를 포함하는데 마치 원을 이루며 둥글게 움직이는 것과 같다.

화음 즉 화성은 수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화음을 이루는 음성이나 소리는 수적인 비율로 바꿀 수 있다. 화음은 음량 또는 음질의 비율인데, 그래서 화음은 수적 비율이라는 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플라톤이 보기에 (음성과 같이) 복합적인 것들은 (수와 같이) 그 보다 더 단순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그는 영혼의 본질은 수적인 것들 사이의 중간(도정)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수적인 것들은 추상적인 수와 감각적인 실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추상수(抽象數)와 감각체(感覺體) 사이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지성은 직접 대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 좋아하는 대상과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영혼이 파악할 때, 짝과 홀의 관점에서 순환 운동을 한다. 이런 원칙은 세계-영혼에 의해 움직이는 천체들에게도 적용된다.

천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원 운동이 있다. 하나는 천체의 단순하고 단일한 운동으로 춘분선(또는 추분선)의 궤도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매일 운행한다. 또 하나는 행성 운동으로 황도선(黃道)의 궤도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한다. 전자는 단일한 운동으로 홀수를 닮았다. 반면 후자의 운동은 여럿으로 나뉘어 7개의 원 운동에 해당된다. <<티마아오스>>에서 언급하듯이 2와 3으로 시작하는 두 연속수열로 나뉜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운동인 행성 운동은 다시 여섯 개의 점으로 나뉜다. 점이 여섯이므로 일곱 개의 영역이 생기는데 이 원들은 가장 큰 수인 홀수에 의한 형성된 원 보다 작다. 따라서 “우주 전체는 본래 잘 조율된 운동”이고, 천체의 조화로운 운동은 세계-영혼인 신이 직선을 구부려서 만들었다.

선대들의 이론 5. 플라톤 비판(계속)

I. 원전(text)

1. 우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이 공간적인 크기(mevgeqo")를 가진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세계만물의 영혼을 종종 소위 지성(nou")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성질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만물들의 영혼을 감각능력이나 욕구능력으로 보지 않는데 이런 능력들의 운동은 사실상 순환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성은 사고(novhsi") 행위에서 보듯이 하나이고 연속성을 가졌는데, 사고는 사고한 내용들(nohvmama)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고내용들은 크기로써가 아니라 수(數)처럼 연속하는 단일성(tw'/ ejfexh" e{n)을 가졌다. 그러므로 지성은 (크기를 가진) 그러한 연속성일 수 없고, 오히려 나눌 수 없는(부분을 갖지 않은) 것이지 공간적 크기를 가진 것과 같은 연속성일 수는 없다. 407a2-10

2. 만일 지성이 공간적 크기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성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을까? 부분들에 대해 사고할 때, 우리는 크기의 관점에서 보거나, (점을 공간적 크기의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점(stigmhv)의 관점에서 각 부분을 보아야 한다. 만약 점의 관점에서 본다면(이 점들은 수적으로 무한한데), 지성은 연속하는 점들의 과정에서 그 끝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 공간적 크기의 관점에서 볼 때, 지성은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고하거나 또는 무한히 반복해서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상에 대해 사고하는 것은 분명히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만약 어떤 부분이 되었던 부분을 접촉(接觸, qigei'n)함으로써 충분하다면, 지성이 순환 운동을 한다거나 공간적 크기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반면 원 전체에 대한 접촉으로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부분을 접촉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407a10-18

3. 게다가 부분을 갖지 않은 것(=나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부분을 가진 것을(나눌 수 있는 것)을 사고할 수 있을까? 또는 부분을 가진 것은 어떻게 부분을 갖지 않은 것을 사고할 수 있을까? 407a18-19

4. 지성은 여기서 말한 원과 동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성의 운동은 사고(novhsi")이고 원의 운동은 순환(循環, 회전回轉, periforav)이다. 그래서 사고가 순환운동이라면, 이렇게 순환하는 원은 틀림없이 지성일 것이다. 순환운동이 영원(ajtvdio")하다면, 지성이 언제나 사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한편 실천적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다. 이론적 사고는 논리적 표현양식(lovgo")에 의해 역시 한계를 가지는데, 논리적 표현은 모두 정의(oJrismov") 또는 논증(ajpovdeixi")이다. 논증은 원리에서 시작하며 추론을 거쳐 얻은 결과 또는 결론을 가진다. 이런 사고과정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시 원리(출발점)로 되돌아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중간항이나 극단항들을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순환운동은 원리로 되돌아간다. 정의도 역시 모두 (항에 의해) 한계를 갖고 있다. 407a19-31

5. 나아가 동일한 순환운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407a31-32

6. 게다가 사고는 운동보다는 고요(hjrevmhsi")나 정지(ejpistavsi")와 더 어울릴 수 있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도 이와 같다. 407a34-34

7. 또한 수월하지 않고 강제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영혼의 운동이 영혼의 본질이 아니라면, 영혼은 자연에 반해서(para; fuvsin) 운동할 것이다.

8. 영혼이 어쩔 수 없이 신체와 결합되어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은 틀림없이 부담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지성이 신체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신체와 결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07b2-5

9. 그리고 천체(oujranov")가 순환 운동하는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혼의 본질은 순환운동의 원인이 아니고 그러한 운동은 영혼에서 단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체도 순환운동의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신체의 원인이지만, 영혼이 그렇게 운동한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영혼이 순환 운동을 하도록 신이 만든 이유는, 정지보다는 운동이 더 낫고 다른 방식보다 순환으로 운동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른 설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 두자. 407b5-13

10. 지금 우리가 검토한 관점은 다른 여러 설명들과 비슷한데,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특징이 있다. 이런 설명들은 결합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영혼이 신체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영혼을 신체 안에 두면서 영혼과 신체를 결합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드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위자(tov poiei')와 피행위자(to; pavskei) 그리고 운동자(to; kinei'tai)와 피운동자(tov kinei')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관계들은 결코 우연찮게 성립하지 않고 일정한 특징을 갖는다. 이런 사상가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영혼이 지닌 특징들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영혼을 수용하는 신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타고라스의 우화에서 보듯이 마치 우연히 영혼이 신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룬다. 이들은 각각의 신체는 자신의 고유한 종(ei'do")이나 형태(morfhv)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목공예 기술이 스스로 플랫 악기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각 공예 기술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영혼은 그의 신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407b13-26

II. 주요 개념(sensus)

영혼은 지성, 감각, 섭생 등 능력을 지녔다. 지성의 활동기능은 사고이고, 사고는 대상들과 사고내용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성은 수와 같은 성질을 가졌고, 그래서 '크기'를 지녔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즉 지성은 '하나이고 연속성'을 지녔다. 이런 주장은 사고의 내용들 또는 사고의 대상을 검토해 봄으로써 지성이 '하나이고 연속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지성-사고-사고내용(대상)의 순서를 역으로 추적해 가서 지성이 '하나이고 연속'임을 입증한다.

지성이 운동하며 또한 순환운동을 한다는 점도 역시 지성의 기능인 사고과 사고의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즉 지성은 순환운동이 아니라, 직선운동으로서 시작과 끝이 있다.

그리고 지성은 '나눌 수 없는 것'도 사고의 대상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알 수 있다. 지성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

영혼과 신체의 관계는 피타고라스의 우화처럼 멋대로 영혼이 신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신체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결합한다.

접촉은 한 쪽과 다른 쪽의 만남이다. 사고가 대상을 '접촉'하여 인식한다면, 접촉하는 부

분이 대상의 전체이거나 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접촉으로 인식하는 일은 어렵다. 즉 공간적 크기를 가진 것을 접촉함으로써 사고가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III. 세부 논의(disputatio)

1. 플라톤은 지성이 양적이라거나 순환운동이라고 보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플라톤이 사용한 언어 표현에 따른 문제점에 비판을 가한다. 열 개의 논변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논변; 플라톤이 무엇을 영혼으로 생각하는지를 소개한다. 그에게 영혼은 세계-영혼이다. 즉 플라톤에게 우주전체의 영혼은 전적으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영혼은 섭생능력도 아니고, 감각능력도 아니며 욕구적 성향을 가진 능력도 아니다. 반면 생각하고 인식능력을 가진 지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순환적이다. 즉 우리는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요컨대 플라톤에게 지성은 일종의 공간적 크기이자 순환운동을 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이런 특징을 수용하지 않는다.

영혼의 본질을 묻는 문제는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로서 지성, 감각, 섭생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능력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기능들이 있고, 각 기능에 따라 적합한 대상들이 있다. 그래서 기능을 알면 능력을 알 수 있고, 대상을 알면 기능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능력이 ‘하나이고 연속’이면, 그의 활동기능도 ‘하나이고 연속’이다. 그리고 이 기능이 ‘하나이고 연속’이면, 대상도 ‘하나이고 연속’이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다르다. 지성의 대상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은 ‘단일한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단일성’은 크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數)와 같다. 따라서 플라톤이 생각하듯이 지성은 공간적 크기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연속’은 공간적인 크기에서가 아니라 수가 가진 연속성과 같다. 수에서 연속한다는 것은, 단일한 하나를 가진 것들이 연속해 있어서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로 나아간다. 이렇듯 지성이 대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하나의 대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을 파악한다.

2. 두 번째 논변; 플라톤은 지성의 대상들이 다수라서가 아니라 각각의 인식대상들 자체가 공간적 크기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성에 공간적 크기를 부여한다.

이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 플라톤은 인식기능의 활동은 인식형상이 지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운동에서 보듯이 일종의 접촉이다. 즉 지성은 인식대상을 만나러 간다. 그런데 그 대상이 크기를 가진 것이라면, 어떻게 접촉함으로써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 지성이 대상을 접촉할 경우, 대상 전체를 접촉하거나 대상의 일부분을 접촉해야 한다. 전체를 접촉한다면 각 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지성은 곧 크기라거나 원으로 놓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만일 일부분을 접촉해서 일부분을 인식한다면, 일부분이나 하나의 부분만 필요하다. 하나의 부분만 필요하다면, 그 외 다른 부분들은 불필요하고, 지성은 또한 부분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모든 부분들을 접촉함으로써 인식한다면, 그런 것들은 점이거나 양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점이라면, 크기 안에 있는 점들의 수는 무한하므로, 지성은 모든 부분들을 인식하기에 앞서서 그 대상을 무한히 접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그 모든 부분들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점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르다. 플라톤은 입체는 면으로서, 면은 선으로, 선은 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은 점으로 구성된다

고 보지 않았다. 즉 점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선이 되지 않는다.<<자연학>>, VI권 1장, 231a20-25).

만일 지성이 양적인 부분을 접촉해서 인식한다면, 각 부분을 여럿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양을 무한히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반으로 나누되 똑같은 크기를 가진) 나눌 수 있다면, 지성은 같은 대상을 무한히 인식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지성은 본성상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진 본질 또는 본성이다. 이것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 전반에 깔려 있다. 이것은 종으로서(예, 인간) 본질이 그 종의 각 개체들(예, 소크라테스)에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각 개인들 모두에게 들어 있고, 인간의 본성을 지닌 각 개인들은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듯 인식 대상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성도 역시 나눌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세 번째 논변; 일단 지성은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전제로 놓으면, 나눌 수 없는 것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지 알게 된다. 즉 나눌 수 없는 본성을 가진 것은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것에 의해서 인식되고, 나눌 수 있는 본성을 가진 것은 역시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것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지성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놓게 되면, 이 지성은 나눌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4. 네 번째 논변; 사람들은 지성이 원형이며 운동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원의 운동은 순환이며, 지성의 운동은 인식이다. 따라서 지성이 원형이면 인식은 순환운동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순환운동은 사실상 시작이나 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지성의 활동으로서 인식은 결코 어떤 끝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자연학>>, VIII권, 8장 264b8이하). 그런데 인식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순환운동일 수 없으므로 지성은 원형이 아니다.

인식이 시작과 끝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으로 나뉜다. 실천적 인식은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가지는데, 제작 또는 수행하는 일이 끝나는 곳이 실천인식의 끝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실천인식은 끝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이론적 인식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적합한 목적, 즉 이데아(개념, 항)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정의(definition)나 논증(syllogismos)에서 어떤 것이건 이데아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에서 궁극적으로 토대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항이 있어야 하고, 논증에서도 원리 또는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끝 또는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논증은 순환이 아니라 직선운동이고 직선운동에서 무한히 운동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참고, <<후분석론>>, 3장, 72b5-73a20).

정의에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는데, 출발점은 최고류의 개념으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반면 종착점은 최하위종으로서 가장 개별적인 항이다. 따라서 정의에는 최고류와 최하위종이 있어야 한다.

5. 다섯 번째 논변; 네 번째 논변과 연관되어 있다. 플라톤에게 인식은 순환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렇지 않다. 순환하지 않는 운동은 결코 같은 양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환운동과 다르다. '질적 변화'(alteration)는 하양이 검정으로 바뀌고, 검정이 하양으로 바뀌는 과정이므로 같은 대상에 대해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 크기의 변화(확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같은 대상을 보고 있지 않다. 장소이동(locomotion)도 역

시 직선으로 운동하면 실제로 끝점이 있게 마련이다. 만약 직선으로 왕복운동을 한다면 운동의 끝점은 두 번 반복해야 한다. 즉 한 번은 끝이고 한 번은 시작점이다. 그런데 끝점에서 다시 돌아서는 순간은 정지이므로, 정지에서 다시 시작하는 운동은 또 다른 운동이 된다. 순환운동이야 말로 ‘하나이면서 동일한’ 운동으로 동일한 운동이 반복된다. 순환운동에서 실제로 끝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정지하는 일은 없다.

인식이 순환운동이면, 동일한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인식한다. 그렇게 되면 지성도 역시 같은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인식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6. 여섯 번째 논변; 만일 인식이 순환한다면,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상 인식은 이와 정 반대로 정지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VII 권, 3장 247b10에서 다룬다. 즉 만일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는 우선 내적 평정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거망동하거나 멈추지 않는 자는 현명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일정한 곳에 머물며 고요함에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지혜와 숙고가 필요하다.

7. 일곱 번째 논변; 인식은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행복은 영혼의 완전함이나 궁극의 목적에 있으므로, 행복은 폭력이나 강제성을 띤 어떤 것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운동은 영혼의 본질이 될 수 없고 영혼에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행복을 느끼는 영혼의 활동은 운동에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은 또한 플라톤의 입장이기도 하다. 플라톤에게 운동은 영혼의 본질이 아니라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8. 여덟 번째 논변;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신체에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고 보았던 것 같다. 어떤 것이 자신의 본질에 어긋나게 다른 것과 결합되어서 거기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면, 그러한 결합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함으로써 퇴락한다면 그러한 결합은 좋은 일이 아니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과 신체의 결합이 본질에 어긋나는 결합이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면 그 결합은 좋은 일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플라톤이 전제로 놓은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었고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었다는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9. 아홉 번째 논변; 플라톤은 세계(천체)-영혼을 내세우며 천체는 원형 궤도로 순환운동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천체의 순환운동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즉 순환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않는다. 천체가 순환운동을 한다면, 내부의 원리나 외부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내부의 원리가 원인이라면, 영혼의 본질이거나 천체들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혼에서 순환운동은 본질이 아니라 우연적 현상이므로 원인일 수 없다. 천체들도 원인일 수 없다. 영혼이 신체의 원인이지, 신체가 영혼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외부의 원리가 원인이라면, 왜 천체가 순환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신의 의지를 끌어 들이지 않는 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 신은 천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움직이도록 했으며, 더구나 그 움직임이 순환운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왜 신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플라톤은 말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에 관해서>> II권 5장 287b22 이하에서 볼 수 있다.

10. 열 번째 논변; 이 논변은 플라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논박이다. 운동자와 피운동자, 행위자와 피행위자, 형상과 질료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양자 사이에는 무조건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혼과 신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영혼에 대해서만 그 본질만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신체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그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어서 피타고라스의 우화를 소개한다. 즉 어떤 영혼이건 아무 신체에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우화이다. 예를 들어 파리의 영혼이 코끼리의 신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체에서 각각의 신체는 자신의 고유한 형상과 종과 운동방식을 가진다. 파리와 코끼리의 신체 사이에는 전혀 다른 차이점들이 있다. 이것은 공예기술이 플룻과 같은 악기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악기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예기술의 힘에 있다면 기술과 악기 사이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무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혼이 신체에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자신에게 적합한 신체에 들어간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플라톤과 그 외 여러 사람들은 신체가 어떤 영혼에 적합한지를, 그리고 양자의 명료한 결합방식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